

월/요/광/장

강희숙



흔히 아버지 부시라고 불리는 미국의 제41대 대통령 조지 H.W. 부시의 부인인 바바라 여사는 남편을 배우자로 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는데를 묻는 질문에 "그가 나를 웃겼기 때문"이라고 단호한 적이 있다. 일생일대의 선택인 결혼의 조건으로 다른 무엇보다도 '유머 감각'을 우선시하였다는 일화이다.

명한 패션 디자이너였던 크리스찬 디오르(Christian Dior, 1905~1957)가 "재미야말로 모든 아름다움의 비결이다. 재미없고 매력있는 아름다움은 없다."라고 했다. 아무리 뛰어난 아름다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EnQ(유머지수)를 권하는 시대

라도 그가 재미있는 구석이라고는 없는 사람이라면, 말 그대로 2%는 부족한 사람임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라프의 수필가이자 저널리스트인 로버트 린드(Rovert Lynd, 1879~1949)는 "웃음은 이 세상의 죄와 어리석음을 따뜻하게 묵인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때로는 웃음이 다른 모든 악덕을 덮어줄 수 있을 만큼 위력을 발휘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대다수 직장인들이 유머가 직장생활의 성공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실제로 유머러스한 사

람이 대우를 받으며, 주변에 두고자 하는 추세 또한 두드러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따라 많은 최고 경영자들(CEO)들이 재미있고 유머감이 풍부한 사람을 채용하고 싶은 인재 유형으로 꼽는다. 하지만 요즘처럼 취업이 어려운 때라면, 자신이 개발해야 할 능력 가운데 하나로 엔큐(EnQ) 지수를 높이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흔히 '타고난 유머 감각'이라고 하여 다분히 선천적인 요소라고 치부하였던 인식에서 벗어나 최근 들어서는 '재미'도 학습

이 가능한 일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대학의 평생교육원 등에서 '편러디심', '웃음치료', '레크리에이션' 등 재미를 가르치는 강좌들을 다양하게 개설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인식을 반영하는 것들이다.

그러나 우리의 웃음이 썰렁한 개그가 아니라 상황과 대상에 가장 알맞은 지혜이자 재치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세상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양한 분야의 책 읽기, 신문, 뉴스 등 정보에 대해 항상 주의 깊게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이 필수조건인 것이다. 현대 중국의 대표적인 지성이라고 꼽는 임어당(林語堂)은 주변 사람들을 늘 웃기고 유쾌하게 만드는 데 남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를 '유머 대사'라고 불렀다. 그 같은 임어당의 능력은 천부적이라기보다는 해박한 지식 위에 인생과 자연을 관조하는 높은 철학적 소양에 있었음은 물론이다.

과열된 입시 경쟁과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도 어렵다는 취업난에 허덕이는 동안, 각박한 무더어지고 얼굴은 한없이 굳어져 당겨놓은 화살처럼 팽팽한 긴장감만 팽도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우리는 진보와 개혁 대신 신보수주의라는 이름의 권력이 새로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정치 현실에 봉착해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은 시대의 우울을 훌훌 떨쳐버릴 수 있는 기제로 '술 권하는 시대'가 없지 않았지만, 이제는 마약으로 '엔큐(EnQ) 권하는 시대'임을 마음에 새겨야 할 일이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한 어느 심리학자의 선언이 우리의 우리에게도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조선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전국 평균에도 못미친 광주·전남 성장률

지난해 광주·전남의 지역내총생산(GRDP) 실질 성장률이 전국 평균치에도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전년 대비 2006년 지역내총생산 성장률은 광주 3.6%, 전남 2.8%였다. 이는 전국 평균 5.1%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광주는 7위, 전남은 꼴찌에서 4번째다.

GRDP는지역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합계로 시·도별 국내 총생산(GDP)의 지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광주·전남의 GDRP성장률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 것은 지역 성장동력이 타지역에 비해 뒤떨어지고 성장이 더디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광주는 산업생산 규모 면에서 전국 최하위권이다. 지역 총생산액의 경우 19조494억원으로 제주(7조5천961억원)를 제외한 최하위에 머물렀다. 광주의 1인당 GRDP 역시 1천319만9천원으로, 대구(1천122만1천원) 다음으

로 적고, 울산(3천836만7천원)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했다. 광주 지역경제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정도로 아직 규모화되지 못한 것이다.

전남 역시 1인당 GRDP만 2천266만3천원으로 전국 평균치를 상회했을 뿐 1인당 민간소비지출이 816만원으로 꼴찌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하위권을 맴돌았다.

광주·전남이 지금과 같은 낙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산업규모를 키우는 일이 시급하다. 투자 및 기업유치를 통해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관광산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가 타지역에 비해 뒤떨어지고 성장이 더디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광주는 산업생산 규모 면에서 전국 최하위권이다. 지역 총생산액의 경우 19조494억원으로 제주(7조5천961억원)를 제외한 최하위에 머물렀다. 광주의 1인당 GRDP 역시 1천319만9천원으로, 대구(1천122만1천원) 다음으

정부, 주택대출 '이자폭탄' 방관할 건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일부 은행권의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주 초보다 0.06%~0.09% 포인트 올라 8.2%선을 돌파했다. 금리가 6주 연속 오르면서 서민대출자에게는 '이자 폭탄' 경보가 내려진 것이다.

주택대출 금리가 오르고 있는 것은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 상승세에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이다. CD 금리는 지난 21일 현재 5.78%로 지난 달 12일 이후 0.43%포인트 급등하면서 2001년 5월30일 이후 6년7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서민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달 12일 은행에 집을 담보로 2억원을 빌렸다면 금리의 급상승으로 연간 이자 부담이 한 달 보름 전에 비해 100만원 늘어나게 됐다. 서민들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맞물려 거기에 큰 압박을 받게 된 것이다.

전망이 밝은 것도 아니다. 은행권의

자금 부족현상은 내년 상반기 만기가 돌아오는 은행채와 CD 규모가 각각 50조원에 달하는데다 예금의 이탈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금리의 급등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 발(發) 신용위기가 현실화될 수 있다.

주택대출 금리 인상을 통해 부담을 서민에게 떠넘기는 단일한 경영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CD금리가 오르고 있는 것은 은행권이 경쟁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내놔서 때문이다. 대출금 회수와 금리 인상에만 급급하기 보다는 사업의 다각화 등 유동성 위기에 따른 근본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금융감독 당국은 가계대출의 부실 가능성이 낮다고 안심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내년 우리 경제는 고물가와 저성장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금리가 단기간에 크게 오르면 대내외 불균형과 겹쳐 예상치 못한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無等鼓

연말이 되면 은근히 관심이 가는 것 중 하나가 '올해의 한자성어'다. '교수신문'은 지난 2001년부터 한해동안 우리 사회의 자화상을 가장 잘 묘사한 한자성어를 골라 발표해왔다.

지난 2006년의 한자성어는 '蜜寒不雨'(밀운불우)였다. 周鼎(주역)의 '小畜卦'(소축괘)에 나오는 말로 '구름만 잔뜩 끼어있고 비는 오지 않는다'는 뜻을 담고 있다. 여건은 성숙했지만 정작 아무 일도 성사되지 않는 답답한 상황을 말한다. 부동산 폭등, 북한 핵실험, 정부 리더십 부재와 여야간 정쟁으로 되는 일 없었던 한 국 사회를 풍자하고 있다.

'교수신문'은 23일 '올해의 한자성어'로 '자기기인'(自欺欺人)을 선정했다. '자기기인'이란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인다'는 뜻이다. 주자의 어록을 모은 '주자어류'(朱子語類)와 불경(佛經)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자기기인'은 단순해 타인을 속이는 것이 아니다. 남을 속일 뿐 아니라 자신마저 속이는, 거짓의 일상화와 도덕적

불감증의 만연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물론 신정아 학력위조 사건으로 촉발된 한국 사회의 허위위식을 빚낸 말이 다.

다른 해라고 해서 희망을 담은 말이 선택되지는 않았다. '올해의 한자성어'가 선정되기 시작한 이후 '오리무중'(2001년), '이합집산'(2002년), '우왕좌왕'(2003년), '黨同伐異'(당동발이·한 패가 아니면 배척함·2004년)', '上火下澤'(상화하택·서로 이반하고 분열함·2005년)'이 각각 뽑혔다. 하나같이 갈등과 분열로 얼룩진 모습이 다.

그런데 공교로운 일이 일어났다. 최근 일본한자능력검정협회 올해의 한자성어 '자기기인'(自欺欺人)을 선정했다. '자기기인'이란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인다'는 뜻이다. 주자의 어록을 모은 '주자어류'(朱子語類)와 불경(佛經)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자기기인'은 단순해 타인을 속이는 것이 아니다. 남을 속일 뿐 아니라 자신마저 속이는, 거짓의 일상화와 도덕적

/오주승 정치부장 jsoh@kwangju.co.kr

자기기인(自欺欺人)



법조 칼럼

최창훈



대한민국 국민은 그동안 호주부라는 공적장부에 호주를 중심으로 한 구 성원 전체의 신분관계를 기재해 왔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호주제에 대해 개인의 존엄과 남녀 평등의 헌법이념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에 따라, 국회는 호주 중심의 가부장적인 호주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에 이르렀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제도는 '본적' 대신에 가족 구성원 각 개인별 임의로 '등록기준지'를 정하게 해 개인별 가족관계 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으

린부모 동의가 있어야 한다. 가정법원의 친양자입양 재판을 받아 확정되어야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친양자로 인정되면 자기를 낳아 준 친생부모와 친족관계가 모두 종료된다. 또한 양부 또는 양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으며, 재산상속도 양부모의 상속만을 받을 수 있다. 파양을 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엄격한 제한을 두었다.

넷째, 호적등본을 대신한 다양한 목적별 증명서가 발급된다. 가족관계 등 록제도는 증명 목적에 따라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

내년 시행 '가족관계등록제' 정착 되려면

며, 등록기준지 변경도 가능하게 했다. 호주법에서 호주를 중심으로 짜였던 가족의 개념도 달라졌다.

가장 큰 변화는 첫째, 태어난 자녀에 대해서 부성주의(父姓主義) 원칙을 수정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혼인당사자가 혼인 신고할 때 어머니의 성과 본을 사용하기로 협의한 경우 그 자녀는 모두 어머니의 성(姓)과 본(本)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협의가 없을 경우에는 그대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된다.

둘째,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姓)과 본(本)을 변경할 수 있다. 이는 호적법상 성(姓) 불변의 원칙으로 재혼 가정의 자녀가 새 아버지와 성(姓)과 본(本)이 서로 달라 입는 정서적 피해와 사회적 편견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셋째, 친양자로 입양이 될 수 있는 자는 만 15세 미만이어야 하며, 그 자녀의

계증명서로 구분돼 필요한 목적에 따라 발급을 받을 수가 있다.

근본 취지는 본인 및 본인 외의 개인 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점에 있다. 따라서 각종 증명서를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 이고, 본인의 사정에 의해 제 3자에게 증명서 발급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에 발급권자의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국민 개개인의 존엄과 양성 평등의 헌법이념을 실현하고, 해체된 가정의 자녀에 대한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시행되는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 제도가 시행 초기에 다소간 혼선을 빚을 수 있다. 국민의 관심과 폭넓은 이해로 새 제도가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다.

〈광주지법 가정지원 판사〉

음식점, 외국인 배려 '맛 정보' 제공 했으면

일본 오사카의 한식당에 들렀다가 닭갈비·김치 파전·도가니탕·설렁탕 등 모든 음식에 대한 메뉴 정도가 표시된 메뉴판을 보고 놀랐다.

예컨대 닭갈비는 고추 5개, 김치 파전은 고추 2개 등의 식으로 '얼마나 매운지'를 표시해 고객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아주 간단하면서도 외국인들을 위한 참신하고 친절할 서비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음식을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해당 음식에 대한 정보가 무엇보다도 궁금하다. 얼마나 매운지 등의 맛의 정도를 알려주는 것부터 음식의 주재료 등의 자세한 정보를 제공

하는 것은 고객들을 위한 배려로 받아들여진다.

광주·전남 지역은 전통적으로 맛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을 만큼 한식이 유명하다. 풍성하면서도 다양한 맛의 음식을 접해보려는 외국인들도 많다.

이들을 위해서라도 유명 음식점을 시작으로 잘 팔리는 음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으면 한다. 매운 정도를 표시하는 것부터 시작해도 되겠다. 하지만 친절할 서비스는 돈 안 들이면서 외국인과 외국인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줄 수 있지 않을까.

▲노정원·광주시 북구 누문동

기고

김동화



개항한 지 한 달여가 지난 무안국제공항이 예상을 넘는 빠른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항공수요의 불확실성으로 국제선 운항이 어려울 것이라는 일부 우려를 불식하고 이달 말이면 중국에 상해·곤명·하문 등 중요도시와 타이페이, 마닐라, 마카오, 방콕, 후쿠오카 등에 주 28편에 이르는 국제선이 운항할 예정이다. 기존에 취항해 온 국내·외 항공사들도 증편 운항을 서두르고 있다.

무안국제공항이 이처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은 각 기관별로 공학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도 있지만 연중 안개일수가 국내에서 가장

지만, 전주에서는 서해안고속도로를 이용하면 광주보다 더 멀지 않다. 오히려 군산에서는 50분, 익산에서는 15분씩이 덜 걸린다. 앞으로 목포~광양 고속도로와 중부간선도로 등이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에 맞춰 조기 개통되면 동부권에서의 접근성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순천에서 무안공항까지 1시간 20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상해와 홍콩, 방콕 등 외국의 주요도시를 가기 위해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것과 비교해볼 때 무안공항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각 기관별로 공학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도 있지만 연중 안개일수가 국내에서 가장

무안국제공항의 무한한 가능성

적은 16일도, 76일인 청주공항의 1/4에 불과하다는 항공기의 양방향 이착륙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묘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24시간 CIQ운영체계가 완비되고, 외국항공사가 무제한으로 취항할 수 있는 '자유공항'이라는 점도 빠른 성장세를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광주~무안 고속도로' 완전 개통되지 않아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도 무리하게 개항했다'는 일부 우려의 시각과는 달리, 현재 무안~나주까지 일부 구간만 개통되었는데도 광주 버스터미널에서 무안공항까지 50분이면 도착할 수 있을 만큼 뛰어난 접근성도 이용객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내년 상반기 중 무안~광주 고속도로가 완전개통되면 공항까지 25분이면 도착이 가능해진다.

지역별로 광주공항까지 가는 시간과 비교해 보면 무안~광주 고속도로 이용 시 순천에서는 20분 정도가 더 소요되

거리지만 무안에서는 불과 15분 만에 마무리되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소수 이익집단에서는 광주공항의 국제선 잔류를 집요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무안공항의 2005년 수요가 650만 명으로 부풀려졌다는 근거 없는 주장(건교부 공항 중장기 계획상 2010년 연간수요는 196만 명일)을 거듭하는가 하면, 서울 지역의 여행 경비는 3박4일에 10만 원이지만 광주·전남은 35만 원 이상이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하지만,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근거도 없는 억지주장을 하며 무안국제공항을 깎아내리는 것은 광주·전남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결국 후남의 발전을 저해하는 편협한 이기주의에 불과한 만큼 앞으로 이같은 행위는 자제되어야 마땅하다.

〈전남대 건설재난관리국장〉

특목고·자립형 사립고 '명문대 코스'로 변질

인문계 고등학교 홈페이지에서 명문대와 4년제 대학의 진학률이 높아 명문고의 위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한 교장의 글을 접한 적이 있다. 명문대에 합격한 학생들의 이름이 적힌 플래카드가 교문 앞에 자랑스러운 듯이 내걸리는 경우도 많다. 명문대 진학률이 높다고 명문고라는 타이틀을 붙일 수 있을까?

창조적 소수자의 양성이라는 모토를 가진 특수목적고, 성취 우수자와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만 모이라는 취지로 설립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경우에도 높은 명문대 진학률로 새롭게 등장한 명문고로 세력이다.

우리의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들은 오로

지 명문대 입학만을 목표로 해 전혀 명문고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명문대만 많이 진학시키면 다 명문고라는 타이틀을 붙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들은 학생들을 명문대로 보내려고 안간힘을 쓴다. 그러나 그밖의 학생들은 마치 게임에서 진 것처럼 처절하게 내팽겨쳐진다.

그 플래카드에 적힌 학생들만 전부가 아니다. 학교는 공부만 가르치는 입시학원이나 학생들에게 정신적 영향과 엄청난 힘을 가진 멘토여야 한다.

▲우항화·광주시 북구 우산동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善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11(가)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		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19	총무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체육부 2200-626	광고국 2200-521	판매부 2200-551
편집부 2200-616	여론체육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 1부 2200-618	사건부 2200-690	시업 2부 2200-552	(F A X 02-773-9335)
(F A X 222-4267)	조사부 2200-570	※구독료 월정액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